참고문헌

특집 |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 천자현

- 김도열(2002), 「1990년대 일본에서의 ‘전후보상론’과 한국인의 인식」,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호.
- 김용복(2013),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와 사회』 제99호.
- 김호섭(2009),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일본연구논총』 제29호.
- 박재영·김영란(2009), 「독일의 과거극복 어디까지 왔나?」, 『동학연구』 제26집.
- 박화리(2001), 「중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민족연구』 제6호.
- 아라이 신이치(2006),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김태웅 옮김, 미래 M&B.
- 아산정책연구원(2014), *Policy Report*, 2014. 3.
- 양기호(2002), 「전후보상과 한국정부의 대응」, 『일본학보』 제53집.
- 우승지(2003), 「냉전 시기 한국-일본 협력의 퍼즐: 불개입가설 대 개입-연합정치가설」,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3호.
- 이상봉(2006), 「재일한인의 전후보상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연대의 특징: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 이지영(2013), 「일본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 전재호(2012), 「박정희 정권의 ‘호국 영웅 만들기’와 전통문화유산정책」, 『역사비평』 제99호.
- 한상진(2008), 「동아시아에서 본 응징의 정의, 용서 그리고 딜레마: 화해를 위한 최소주의자의 상호 접근방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6 문명과 평화』, 한국학중앙연구원.
- Balint, Jeniffer(2001), "Law's Constitution Possibilities: Reconstruction and Reconciliation in the Wake of Genocide and State Crime."
- Berger, Thomas(2003), "Power and Purpose in Pacific East Asia: A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a, Victor(2000),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 June 2000.
- Crocker, David(1999), "Reckoning with past wrongs: A normative framework,"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13.
- Duff, Antony(2001), *Punishment, Communication and Comm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 Derrida, Jacques(2001), *On Cosmopolitanism and Forgiveness*, NY: Routledge.

- Hundt, David and Roland Bleiker(2007), "Reconciling Colonial Memories in Korea and Japan," *Asian Perspective* 31(1).
- Minow, Martha(1998),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Facing History after Genocide and Mass Violence*, Boston: Beacon Press.
- Offe, Claus(2005), "Transition Justice after Democratization: Options, Patterns, Objectives, Dilemma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Politics," Paper presented on the Occasion of the Centennial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Umbreit, Mark S. et al.(2005), "Restorative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Social Movement Full of Opportunities and Pitfalls," *Marquette Law Review*, Vol. 89.
- Van Ness, Daniel W. and Karen Heetderks Strong(2010), *Restoring Justice - An Introduction to Restorative Justice*, 4th ed. New Province, NJ: Matthew Bender & Co., Inc.
- Stokkom, BAM van(2008), "Disorder policing and community needs. 'Revising' broken windows theory," in EASTON, M. et al. eds., *Reflections on Reassurance Policing in the Low Countries*, Boom Legal Publishers.
- Zehr, Howard(2002), *The Littlebook of Restorative Justice*. UNICEF.
- 矢野久(2006), 「賠償と補償」, 『20世紀の中の亞細亞太平洋戦争』, 岩波書店.
<http://ajwrc.org/eng/>
<http://wam-peace.org/en/>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 니시노 준야

- 경제기획원(1976), 『청구권자금 백서』.
- 경제기획원 편(1982),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30년사 I』, 미래사.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1977), 『한일관계 자료집』 제2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광모(1988), 『한국의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정책』, 지구문화사.
- 김흥기 편(1999), 『영육의 한국경제: 비사 경제기획원 33년』, 매일경제신문사.
- 니시노 준야(2005), 「한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일본으로부터의 학습」, 연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논문.
- 류상영(2003),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일 경제관계: 민간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집 2호.
- 박진희(2002), 「한일 국교수립 과정에서 '한일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문제연구』 제9호.
- 안소영(2011), 「한일관계와 '비정식접촉자': 국교정상화 성립 전후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1호.
- 오원철(1999), 『한국형 경제건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제7권)』,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 오원철(1996), 『한국형 경제건설 제2권』, 기아경제연구소.
- 오효진(1986), 『정상을 가는 사람들: 오효진의 인간 탐구 1』, 조선일보사.
- 이현진(2011), 「1960년대 후반 정세변화와 한일경제협력의 논리: 한일정기자료회의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38집.
-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1973), 『중화학공업육성계획』,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1989), 『포항제철20년사』.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1979), 『포항제철10년사』.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1971), 『포항제철건설지』.
- 한국생산성본부(1965), 일본경제조사협의회 공편,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 한일 경제공동 조사 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
- 姜先姬(2001), 「韓国における日本の経済協力: 浦項総合製鉄所建設をめぐる日韓経済協力」, 『現代社会文化研究』 第21号.
- 谷浦孝雄(1988), 『韓国の工業化と開発体制』, アジア経済研究所.
- 金立三(2007), 花房征夫 訳, 『韓国経済の奇跡: 礎を築いた民間経済人の熱い思い』, 晩聲社.
-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2013), 『対韓無償資金協力および技術協力に関する調査報告書』.
- 柳相栄(1993), 「日韓関係の政治経済的構造と性格に関する一考察: 韓国の浦項製鉄所建設をめぐる日韓経済協力を中心に」, 『法学政治学論究』 第18号.
- 山本剛士(1984), 『戦後日本外交史VI 南北問題と日本』, 三省堂.
- 西野純也(2014), 「韓国の経済開発をめぐる戦後日韓ネットワーク」, 宮城大蔵 編, 『戦後アジアの形成と日本』, 中央公論新社.
- 西野純也会(2008), 「朴正熙大統領『重化学工業化宣言』の政治力学: 『工業構造改編論』の形成過程を中心に」, 慶應義塾大学法学部 編, 『慶應の政治学 国際政治』, 慶應義塾大学出版.
- 西野純也(2005), 「浦項製鉄所建設をめぐる日本からの政策学習: 韓国鉄鋼産業政策の形成過程」, 鐸木昌之・平岩俊司・倉田秀也 編, 『朝鮮半島と国際政治: 冷戦の展開と変容』,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永野慎一郎(2008), 『相互依存の日韓経済関係』, 勁草書房.
- 永野慎一郎 編(2010), 『韓国の経済発展と在日韓国企業人の役割』, 岩波書店.
- 原覚天(1970), 『韓国経済の奇蹟: 高度経済成長と日韓経済協力』, 日本国際問題研究所.
- 日韓経済協会(1991), 『日韓経済協会30年史: 戦後日韓経済交流の軌跡』.
- 日韓関係を記録する会 編(1976), 『資料・日韓関係』(I・II), 現代史出版会.
- 倉田秀也(2001), 「朴正熙『自主国防論』と日米『韓国条項』: 『総力安保体制』の国際政治経済」, 小此木政夫・文正仁 編, 『市場・国家・国際体制』慶應義塾大学出版会.
- 八木信雄(1983), 『日本と韓国(増補再版)』, 日韓文化出版社.
- 朝鮮統一問題会 編(1980), 『シリーズ日韓問題1 腐敗する政治』, 晩聲社.
- 국가법령정보 웹사이트: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 유혁수

- 유혁수(2014), 「재일 한국/조선인사회의 갈등과 과제: 올드커머와 뉴커머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제10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정인섭(1996),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賛汀(2010), 『韓国併合百年と「在日」』, 新潮選書.
- 金泰泳(1999), 『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クスを超えて: 在日朝鮮人のエスニシティ』, 世界思

想史.

- 民団五十年編纂委員会(1997), 『民団五十年史』, 在日本大韓民国民団.
- 田中 宏(2013), 『在日外国人-法の壁, 心の溝 第三版』, 岩波書店.
- 外村 大(2004),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 -形成・構造・変容』, 緑蔭書房.
- 韓載香(2010), 『在日企業の社会経済史: その社会的基盤とダイナミズム』, 名古屋大学出版会.
- 荻野芳夫 編著(2000), 『外国人と法』, 明石書店.
- 手塚和彰(2005), 『外国人と法第3版』, 有斐閣.
- 大沼保昭(2004), 『在日韓国・朝鮮人の国籍と人権』, 東信堂.
- 山田利行他(2010), 『新しい入管法: 2009年改正の解説』, 有斐閣.
- 樋口直人・高谷 幸・大曲由起子・鍛冶 到・稲葉奈々子(2014), 「1990年国勢調査にみる在日外国人の仕事」, 『文化共生学研究』第13号.
- 樋口直人・高谷 幸・大曲由起子・鍛冶 到・稲葉奈々子(2013), 「1995年国勢調査にみる在日外国人の仕事」,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紀要』第36号.
- 樋口直人・高谷 幸・大曲由起子・鍛冶 到・稲葉奈々子(2011), 「在日外国人の仕事-2000年国勢調査データの分析から」, 『茨木大学地域総合研究所年報』第44号.
- 樋口直人・高谷 幸・大曲由起子・鍛冶 到・稲葉奈々子(2013), 「2005年国勢調査にみる在日外国人の仕事」,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紀要』第35号.
- 樋口直人・高谷 幸・大曲由起子・鍛冶 到・稲葉奈々子(2015), 「2010年国勢調査にみる在日外国人の仕事」,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紀要』第38号.
- 柳赫秀(2008), 「在日社会とアイデンティティー歴史と未来」, 『神奈川評論』第59号.
- Kondo Atsushi and Yamawaki Keizo(2014), “MIPEX and Japan: Findings and Reflections”, *OMNES* 4(2).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 조윤수

- 김동욱(2010),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학술정보.
- 김선표(2000), 『한일 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용환(2007), 『독도 인근해역 경계획정의 국제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덕배(2013), 『동북아해양영토전』, 블루노트.
- 박찬호·김한택(2009), 『국제해양법』, 지인북스.
- 박찬호·이석용(2006),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오윤경 외(2000), 『현대 국제법질서: 외교실무자들이 본 이론과 실제』, 박영사.
- 외교통상부 조약국 편(2006), 『동북아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일조각.
- 이계열 외(2008),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 조세영(2014),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조윤수(2013), 「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정치과정」, 『영토해양연구』 6, 동북아역사재단.
- 지철근(1989), 『한일어업분쟁사』, 한국수산신보사.
- 藪中三十二(2010), 『国家の命運』, 新潮新書.

谷内正太郎(2009), 『外交の戦略と志』, 産経新聞社.

全国漁業協同組合(2013), 『200海里運動史』.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 박영준

김대중(2004), 『21세기와 한민족: 김대중 전 대통령 주요 연설 대담, 1998~2004』, 돌베개.

김대중(2010), 『김대중 자서전 2』, 삼인.

김영삼(1994~1996), 『김영삼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제2권, 제3권, 대통령비서실.

노태우(1989~1993), 『노태우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대통령비서실.

민병기(閔丙岐, 1964), 「한일관계의 문제점」, 『국제정치논총』 제2집,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선원(2002),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국제정치논총』 제42집 3호.

박영준 외(2007), 「한일 군사안보 라운드 테이블: 미래의 한일 군사 안보협력의 방향과 과제」(2005. 6), 현대일본학회 엮음,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한올아카데미.

박영준(2012), 「"배타적 민족주의"와 "신냉전적 대립"을 넘어선 지역협력구상」, 동아시아재단 편, 『한국의 오늘과 내일을 말하다』, 동아시아재단.

박영준(2013),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국제관계연구』 제18권 제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박정희(1963), 『국가와 혁명과 나』, 向文社.

박정희(1965~1968),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대통령비서실.

박철언(2005),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 랜덤하우스중앙.

빅터 차(2004),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문학과지성사.

서동만(2006), 「한일 안보협력에 관하여」, 김영작·이원덕 엮음,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올아카데미.

오원철(2006),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동서문화사.

이기태(2014), 「테탕트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일본의 대한 안보정책: 미국의 철수, 균형, 연합 전략과 한일안보협력」, 『국제정치논총』 제54집 2호.

이동원(1992),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이상옥(2002), 『전환기의 한국외교: 이상옥 전 외무장관 외교회고록』, 삶과 꿈.

이상우(1999), 「한일 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 연구: 안보협력지침 시안」, 『新亞細亞』 제6권 제4호.

임동원(2006), 『피스 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books.

청와대(2009. 3),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청와대.

청와대 국가안보실(2014. 7),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최희식(2011),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과정 연구: 1969년 한미일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집 1호, 한국정치학회.

최희식(2014. 10. 14), 「안보경협과 한일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학술회의 자료집 『2014년 공개외교문서와 오를 히스토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한상일(2008),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세카이》(世界)와 한반도』, 기파랑.

東清彦(2006), 「日韓安全保障關係の変遷: 国交正常化から冷戦後まで」, 『國際安全保障』 第33卷

- 4号, 國際安全保障學會.
- 土山実男(2005), 「日米同盟と日韓安全保障協力」, 大島英樹·文正仁, 『日韓國際政治学の新地平: 安全保障と国際協力』,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添谷芳秀(2005), 「対中外交の日韓比較: 日韓安全保障協力の可能性」, 大島英樹·文正仁, 『日韓國際政治学の新地平』,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若宮啓文(1995), 『戦後保守のアジア観』, 朝日選書.
- Choi, Kang(1998),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the Post-Unification Era," 『新亞細亞』, 제 17호.
- Gaddis, John Lewis(2005), *Strategies of Contai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ng, Sung-chick(1978), "Japanese in the Mind of Korean People: A Survey of Student Attitudes," Hahn Bae-ho and Yamamoto Tadashi eds., *Korea and Japan: A New Dialogue Across the Channel*,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at the Korea University.
- Kennan, George F.(1964), "Japanese Security and American Policy," *Foreign Affairs* 43(1).
- Tanaka, Yasumasa(1978), "Japanese Perception of the World of Politics: An Analysis of a Subjective Political Culture," Hahn Bae-ho and Yamamoto Tadashi eds., *Korea and Japan: A New Dialogue Across the Channel*,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at the Korea University.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 윤대엽

- 김상준·윤대엽(2013), 『한일경제협회 30년사』, 한일경제협회.
- 김점숙(1996), 「미군정의 민간 물자보급계획」, 『역사와 현실』 22.
- 김지윤 외(2014), 『일본을 향한 두 시선: 한국인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 대한민국정부(1965), 『한일회담백서』.
- 류상영(2011), 「박정희 시대 한일 경제관계와 포항제철: 단절의 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 『일본연구논총』 제33호(여름).
- 류상영·이승주(2003), 「탈냉전기 한일경제관계와 플라잉 기즈 모델」, 『국제정치논총』 43(2).
- 미즈노 준코(2010),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문제』, 아시아경제연구소.
- 박조현 외(1986), 「대일무역역조의 구조적 실태와 개선방안」, 『입법연구논문집』.
- 산업통상자원부(2013), 「보도자료: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13-16)」.
- 상공부(1986), 『대일무역역조개선계획』, 상공부.
- 윤대엽(2012), 「제도적 재량권과 산업정책의 정치」, 『한국정치연구』 21(2).
- 이승만(1954), 「침략주의 일본은 증오의 대상, 자주 자주국가는 미국의 대외정책 주시」, 이승만 대통령 연설문(54/08/30), www.pa.go.kr(검색일: 2014. 4. 1).
- 이현진(2011), 「1960년대 후반 정세변화와 한일경제협력의 논리: 한일정기각료회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8.
-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FIP-2014-0001(통권 200호).
- 조윤수(2011), 「한국교섭 참석자의 일본인식 변화와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

지식경제부(2011), 「보도자료: 부품소재산업육성 10년, 빛과 그림자」.

차철욱(2004), 「이승만정권기 한일통상협상과 무역구조」, 『역사와 경제』 50.

奈村秀樹(2014), 「輸出による国内付加価値の誘発構造: 日中韓の現状比較と今後とるべき戦略」, 『JRIレビュー』 6(1).

佐野孝治(2013),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韓国の輸出主導型成長モデル」, 『歴史と経済』 219.

佐野孝治(2014), 「韓国の成長モデルと日韓経済関係の変化: 日韓関係変化の経済的背景」, 『商學論集』 第83卷 第2号.

向山英彦(2012),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で強まる日韓経済関係」,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 12(4).

Abdelal, Rawl, Mark Blyth and Craig Parsons(2010), *Constructing the International Econom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Bernard, Mitchell and Ravenhill John(1995), "Beyond Product Cycles and Flying Geese Model: Regionalization, Hierarchy, and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47(January).

Campbell, John(2014), "Chapter 1: Knowledge Regime and the National Origins of Policy Ideas," John L. Campbell and Ove K. Pedersen, *The National Origins of Policy Ide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35.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 박철휘

강원택(2012), 『노태우시대의 재인식』, 나남.

강원택(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기미야 다다시(2006), 「한일관계의 역학과 전망: 냉전기의 다이너미즘과 탈냉전기에서의 구조변용」,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

김수환(2013), 「한일친선협회가 걸어온 길: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한일친선협회 공동 펴냄, 『한일 간 풀뿌리 교류와 국가친선』, 제이앤씨.

박경민(2009. 11. 3), 「한일관계와 의원외교: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희(2003), 「한일 국교수립과정에서 한일 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문제연구』 제9호.

박철휘(2011), 『자민당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철휘(2006), 「일본 정계에서의 신보수주의 세력의 성장과 한국에의 함의」, 김영작·전진호 편, 『글로벌화시대의 일본: 한국에의 함의』, 한울.

박철휘(2003), 「한일 간 정치적 네트워크의 변천과 한일정치협력」,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편, 『한일관계의 종합분석: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손열(2012. 11. 24),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수렴과 상이의 동학」, 현대일본학회 연례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신정화(2004),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도서출판 오름.

안소영(2011), 「한일관계와 비공식접촉자: 국교정상화 성립 전후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 편, 『박정희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인.

오코노기 마사오(2007), 「체제 마찰에서 의식 공유로」, 현대일본학회 편,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

시아의 새로운 비전』, 한울아카데미.

유상영·와다·이토(2012), 『김대중과 한일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원덕(2001), 「한일관계에 있어서 의원외교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4집.

이원덕(1996), 『한일 과거사처리의 원점: 일본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준영(2008), 「갈등 속의 한일관계와 한일의원연맹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6집 1호.

최희식(2014),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일본연구논총』 제39호.

통일부 통일교육원(2014),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교육원.

尹徳民(1991), 『沖繩返還交渉と韓国外交』, 慶應義塾大学 博士論文.

中曾根康弘(1992), 『政治と人生』, 講談社.

Lind, Jennifer(2008),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ark, Cheol Hee(2012), "Depersonalized but Disaffected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in Japanese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ed., *Governmental Changes and Party Political Dynamics in Korea and Japan*, Tokyo: Bokutakusha.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 남기정

강상운(1964), 「宋希環著, 『老松堂日本行録』」, 『국제정치논총』 제3권.

강재연(2005),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이규수 옮김, 한길사.

금병동(2008), 『조선인의 일본관: 600년 역사 속에 펼쳐진 조선인의 일본인식』, 최혜주 옮김, 논형.

길승흠(1993), 「머리말」, 『일본연구논총』 제8호.

길승흠(1990), 「일본정치 연구동향」,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편,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연구』.

김명준(2005), 『임진왜란과 김성일』, 백산서당.

김영작(199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정치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본 회고와 전망」, 『일본연구논총』 제11호.

김영작(2003), 「학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제언」, 『일본연구논총』 제17호.

김용덕(1993), 「일본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연구』.

김유향(2000.12), 「현대 한국 정치학의 일본연구: 1990년대 이후 일본연구의 새로운 경향」, 『한국의 일본연구: 2000년, 연구동향과 논저목록』, 서울대학교 국제지역학 일본자료센터.

김장권(1998), 「일본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1990년대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상섭·권태환,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철(1954), 『일본: 민주화의 좌절』, 부흥서원.

남기정(2007), 「전후 한국 민족주의와 한일관계: 민족주의의 두 속성에 주목하여」, 현대일본학회 편,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한울아카데미.

리차아드 라우터백(1949), 『맥아더 治下の日本』, 崔永植 譯, 博文出版社.

박용구(1994),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

박충석(1991), 「권두언」, 『일본연구논총』 제7호.

방기철(2010), 『조일전쟁과 조선인의 일본인식』, 국학자료원.

- 사에키 코오지(佐伯弘次, 2008), 『동아시아 세계와 『해동제국기』』, 손승철 편, 『『해동제국기』의 세계』, 경인문화사.
- 손승철 엮음(2008), 『『해동제국기』의 세계』, 경인문화사.
- 손승철(2006), 『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 동아시아.
- 신숙주(2004), 『해동제국기』, 신용호 외 주해, 범우사.
- 양호민(1984), 「서언」, 『일본연구논총』 제4호.
- 어수영(1982), 「책을 내면서」, 『일본연구논총』 제3호.
- 聯合軍司令部 編(1946), 『日本戰爭犯罪史: 滿洲事變으로부터 降伏調印式까지의 真相』, 東洋書院.
- 오기평(1986), 「회장인사」, 『일본연구논총』 제5호.
- 유근호(1981), 「책을 내면서」, 『일본연구논총』 제2호.
- 이면우(2007), 「한국의 일본연구 동향, 2000-2005: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올아카데미.
- 이상희(1989), 「권두언」, 『일본연구논총』 제6호.
- 이익(1998), 『성호사설精選 (중) 歷史評論과 歷史敎訓(史)』, 정해림 편역, 현대실학사.
- 이정복(2001), 「권두언」, 『일본연구논총』 제13호.
- 장인성(2000), 「근대조선 일본관의 구조와 성격」, 김용덕·미야지마 히로시 공편, 『근대 교류사와 상호인식, 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정약용(2001),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비이고, 민보의』, 현대실학사.
- 중앙대학교 지역연구소 편(1988), 『한국 내 일본 연구자에 관한 조사보고서』.
- 진창수(2007),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한올아카데미.
- 崔武吉 編(1946), 『(敗亡日本)軍閥의 黑幕』, 國際文化協會.
- 최상용 외(1994), 『일본, 일본학』 도서출판 오름.
- 하영선(2011),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을유문화사.
- 한배호(1979), 「창간사」, 『일본연구논총』 창간호.
- 한배호(1999), 「학문과 정치 현실: 갈등하며 공존하는 두 세계」, 『일본연구논총』 제11호.
- 한배호(2008), 「현대일본학회의 30년을 회고하며」, 『일본공간』 제3호.
- 한상일(2002), 「현대일본연구회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 『일본연구논총』 제15호.
- 한상일 외(1993), 「특집: 한국의 일본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일본학보』 제30집.
- 허동현(1999),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당대.
- 「취지문: 일본문제 세미나」(1968),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7권.
- 金哲宇 編(1947), 『日本戰犯裁判記』, 朝鮮政經研究社.
- Ho Hoang Hoa(2013), 「ベトナムにおける日本研究」, 郭南燕 編, 『世界の日本研究—日本研究の新しい動向』,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 岩井茂樹(2013), 「タイにおける日本研究の現状と課題」, 郭南燕 編, 『世界の日本研究—日本研究の新しい動向』,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 趙寬子(2013), 「1990年代以降の韓国の日本研究—制度と視線の変化」, 郭南燕 編, 『世界の日本研究—日本研究の新しい動向』,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 吉田東伍(1924), 『日本朝鮮比較史話』, 東京: 國史講習會.

- Park, Cheol Hee(2010), "Who's Who and Whereabouts of Japanese Political Studi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Third Generation Japan Specialist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1).
- Kim, Sangjoon and Suh, Seung-won(2010), "Expanding Focus on Japan and the Bounded Dynamism of 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South Korea,"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1).
- 네이버 지식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3695&cid=46626&categoryId=46626>(검색일: 2015. 1. 10).

연구논단

다와다 요코의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문화적 글쓰기 | 최윤영

- 다와다 요코(2011), 『목욕탕』, 최윤영 옮김, 을유문화사.
- 다와다 요코(2011), 『영혼없는 작가』, 최윤영 옮김, 을유문화사.
- 박정희(2011), 「카네티, 외스다마 그리고 타와다의 작품에 나타난 언어도구로서 혀」, 『독일문학』 120.
- 서경식·타와다 요코(2008), 『경계에서 춤추다: 서울-베를린, 언어의 집을 부수고 떠난 유랑자들』, 창비.
- 오비디우스(2005), 『변신이야기』, 천병희 옮김, 숲.
- 정윤희(2010), 「요코 타와다의 『목욕탕』에 나타난 타자성의 문제」, 『뷔히너와 현대문학』 31.
- 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2001),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 최윤영(2006), 「매체로서의 언어, 매체로서의 몸: 요코 타와다의 『목욕탕』과 『별거벗은 눈』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99.
- 피에르 그리말(2003), 『그리스 로마 신화사전』, 최애리 옮김, 열린책들.
- Arnold, Heinz L.(2011), *Text + Kritik. Yoko Tawada*, Göttingen: edition text + kritik.
- Han, Byung-Chul (2005), *Hyperkulturalität. Kultur und Globalisierung*, Berlin: Merve.
- Ivanovic, Christine(2010), "Objekt O/口? Bekett, Kleist, Tawada", in *Études Germanisques*, Nr. 3, Tübingen.
- Geisel, Siegrid(2011), "Kopfkissenbuch der Verwandlung," in H. L. Arnold(Hrsg.), *Text + Kritik, Yoko Tawada*, Göttingen: edition text + kritik.
- "Fremd sein ist eine Kunst-Interview mit Yoko Tawada," http://www.migration-boell.de/web/integration/47_2015.asp(검색일: 2014. 12. 10).
- Tawada, Yoko(1993), *Das Bad*, Tübingen: konkursbuch.
- Tawada, Yoko(1998), *Verwandlung*, Tübingen: konkursbuch.
- Tawada, Yoko(2000), *Opium für Ovid*, Tübingen: konkursbuch.
- Tawada, Yoko(2004), *Das nackte Auge*, Tübingen: konkursbuch.
- Tawada, Yoko(2008), *Schwager in Bordeaux*, Tübingen: konkursbuch.

특집 |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 천자현

투고일자: 2014. 11. 18 | 심사완료일자: 2014. 12. 3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회복적 정의를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주의적으로 접근했다. 인정과 용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전후처리, 역사 갈등, 영토 문제 등의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정의의 최소주의적 접근을 위한 분석 도구는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며, 이를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형태로 시민사회의 노력에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제한적이고 왜곡된 형태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회복적 정의라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 한일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건설적인 관계를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일 관계, 국제정치의론, 회복적 정의, 전후 보상, 시민사회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 니시노 준야

투고일자: 2014. 12. 18 | 심사완료일자: 2014. 12. 23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이 글은 1965년 한일 정부 간에 체결한 이른바 '청구권협정'을 시작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화란 국교정상화와 청구권협정에 기반을 둔 경제 협력 실시를 위한 한일 간의 경험 관련 협의체 및 네트워크 형성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한일정기각료회의와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의 같은 정치·경제계의 하이 레벨 협의를 통해 양국 지도자들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인식이 공유되었고, 또한 한일합동위원회나 경제조사단 같은 실무 레벨에서 정책 지식과 노하우가 전수되었던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한일 간의 다양한 협의체의 형성과 이들을 통한 경제 협력 협의 과정은 전후 한일 경제 협력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금과 기술의 일방적인 이전이라는 측면과는 또 다른 한일 간의 쌍방향적 협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전후 한일 경제 협력의 동학을 보다 입체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

주제어: 한일 경제 협력, 청구권협정, 한일 경제계, 한일정기각료회의, 한일합동위원회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 유혁수

투고일자: 2014. 12. 31 | 심사완료일자: 2015. 1. 9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1991년 1월 10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교환된 '91년 합의각서'와 그에 따라 제정된 입관특별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자 및 후손들에게 간소화된 절차로써 특별영주권을 부여하고 퇴거강제 요건을 완화하고 재입국 허가의 출국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적 지위를 보장했다. 하지만 '91년 합의각서'는 재일동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종식도 아니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는 귀화자 숫자, 일본인과의 결혼 증가, 1984년 양계 혈통주의로의 이행,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의 뉴커머 등장으로 인해 재일동포 사회는 다양화되고 복합화되어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91년 합의각서' 이후 재일동포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위상 변화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 후 전환기를 맞고 있는 재일동포 사회의 현주소와 금후를 전망한다.

우선 2009년 통계법 개정으로 이용 가능한 통계가 공개되면서 이루어진 재일외국인의 직업 및 사회경제적 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 업적에 의거하여 일본의 경제 성장에 수반된 재일동포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어떻게, 또한 얼마만큼 상승되어 왔는가를 검토했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는 일본이 1980년을 전후하여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난민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일부를 제외하면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측면이 있다. '91년 합의각서'에서 합의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분야에서는 소극적이거나 이행 또는 선처되었으나 국민과 외국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제도 속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일동포 사회에는 국적을 취득하여 '코리안계 일본인'으로서 주류사회 진입을 추구하는 길, 글로벌화하는 동아시아 속에서 국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지향하는 제3의 길,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한조일(韓朝日) 관계 속에서 '정체성과 귀속(국적)의 부정합'이란 모순을 간직한 채 일본 사회에 서서히 융·융해되어가는 길 등이 함께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 번째 길의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는 추정으로 끝을 맺는다.

주제어: 재일동포, 올드커머, 뉴커머, 법적 지위, 사회경제적 위상, 정체성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 조운수

투고일자: 2014. 12. 15 | 심사완료일자: 2014. 12. 20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2015년 한일기본조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0년간의 양국 간 갈등과 협력을 어업 및 해양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한일 해양 레짐은 1965년과 1998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다. 두 개의 어업협정은 모두 유엔이 주도하여 체결된 해양법을 기본 정신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일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인 만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틀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8년 신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업 및 해양을 둘러싼 한일 관계 50년 속에 양국이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지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독도에 대한 현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업협정과 북부대륙붕협정 체결과 같이 독도 영유권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은 동해 EEZ 경계 획정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물론 EEZ 경계 획정 교섭에서도 '잠정체제'처럼 우회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내 존재하고 있는 불만 등 각각의 의견들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체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한일어업협정, 해양경계 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협상, 독도, 유엔 해양법, 중간수역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 박영준

투고일자: 2014. 11. 16 | 심사완료일자: 2014. 12. 2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 간에는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안보 관계가 진전되어 왔다. 한일 간 안보 관계는 시기에 따라 협력적 양상이 발전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갈등을 빚는 양상도 나타났다. 한일 간 안보 관계가 이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된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역대 정부의 국가전략 기조와 그에 따른 외교안보정책 기조 속에서 한일 안보 관계가 어떤 변용을 거쳤는지를 고찰하려 했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각각 조국 근대화, 북방정책,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국가전략과 외교안보정책 기조 속에서 한일 안보 관계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반해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정권 초기에 표방된 국가전략 및 외교안보정책 기조에서는 한일 안보 관계의 발전이 표명되었으나,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일본 정부의 역사 및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책이 계기가 되어 촉발된 국내 내셔널리즘의 고조 속에서 정책이 변경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 때문에 한일 안보 관계는 제도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단계의 안보협력에 머물러 있다. 향후에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 북한에 대한 정책 여하,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국내 정서 등의 요인이 한일 안보 관계의 진전 여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한국 국가전략, 한국 외교, 한국 안보정책, 한일 관계, 한일 안보협력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 윤대엽

투고일자: 2014. 11. 18 | 심사완료일자: 2014. 12. 19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이 연구는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검토함으로써 한일 경제 관계가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만 발전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일 경제 관계는 상호 의존의 심화와 동시에 산업구조의 경합 관계로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경쟁적 의존의 한일 경제 관계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역사인식, 발전전략, 그리고 정책이념 등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식민 기억은 한일 경제 관계를 상호 의존이 아닌 종속, 침략, 지배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수출 주도 발전전략 이념은 일본에 의존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통해 형성된 경합적 산업구조와 무역 불균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념적 틀이다. 그리고 일방적 의존과 대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주제어: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역사인식, 수출 주도 발전전략, 정책이념, 산업정책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 박철희

투고일자: 2015. 1. 1 | 심사완료일자: 2015. 1. 11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한일 정치네트워크는 협력의 촉진자 내지 갈등의 중재자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한 정치네트워크는 반공과 경제 협력을 동전의 양면으로 하면서, 권력 핵심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중심에 섰다. 처음에는 군부 인맥을 중심으로 한 점조직적 연계가 점차 선으로 나아가 초당적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갔다. 탈냉전과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안보 협력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체제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협력체로서의 한일 관계가 강조되면서 중층적인 지적 교류 네트워크가 정치네트워크와 병행적으로 형성되어 갔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력의 상대적 균등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 한중관계의 발전은 양자관계의 구조적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보스 정치가 약화되고 정치인들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는 한편,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갈등 조절자로서의 정치네트워크의 효용성은 낮아지고 있다. 기존의 한일 정치네트워크들은 부단한 적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대 간 소통의 부적용, 정권 핵심부와의 연계의 약화, 포괄적 대표성의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합골절 상태에 놓여 있다. 새로운 한일 협력의 비전이 요구되는 이유다.

주제어: 정치네트워크, 한일의원연맹, 지적 네트워크, 한일포럼, 구조전환, 복합골절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 남기정

투고일자: 2014. 12. 26 | 심사완료일자: 2015. 1. 5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연구로서의 일본 연구를 선도해 온 일본 정치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 내지 책임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하나는 기존 연구사 정리다. 둘째는 전근대 시기 일본론의 검토다. 셋째는 현대일본학회 활동에 대한 분석이다.

기존 연구사 정리를 통해, 한국의 일본 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한국적 연구방법론 확립'과 '국제적 보편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이중과제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늘 새로운 문제 제기처럼 반복되고 있다. 조선시대 일본론은 조선 바깥의 세상을 이념과 분리해서 실제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는 주자학적 세계 인식과의 긴장관계에 더해,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주제적 해석과 객관적 실체 사이의 긴장이라는 '이중의 긴장'이 상존하는 모습을 지닌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을 이해하는 데 미국이라는 보편적 시각이 등장한다. 객관적 일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긴장관계를 또한 포함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모델로서 일본론이 등장하는 가운데 모델과 실체 사이의 긴장이 의식되었다.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본 정치 연구는 이러한 유산들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또한 극복하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주제어: 일본 연구, 이중과제론, 조선의 일본,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연구논단

다와다 요코의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문화적 글쓰기 | 최윤영

투고일자: 2014. 12. 1 | 심사완료일자: 2014. 12. 16 | 게재확정일자: 2015. 2. 5

이 글은 독일어와 일본어로 글을 쓰는 이중 언어 작가 요코 다와다의 텍스트 『오비드를 위한 마약』, 『벌거벗은 눈』, 『보르도의 매제』을 대상으로 탈경계적, 탈언어적, 탈문화적 사고와 글쓰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다와다는 일본문학과 유럽문학의 전통을 혼합시키고 이를 낯선 외국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중심의 확고함과 경계의 분명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인데, 이는 동시에 정체성의 문제와도 직접 연결이 된다. 다와다 문학이 보여주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민족 문화 간의 충돌과 갈등, 언어, 경계, 몸, 젠더의 문제들은 혼종성과 경계성 문제를 주제화해 현대성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사유와 글쓰기로서 시사점이 크다.

주제어: 다와다 요코, 탈경계적 글쓰기, 『오비드를 위한 마약』, 『벌거벗은 눈』, 『보르도의 매제』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EVOLUTIO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A New Paradigm of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Reconcil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 CHUN Ja Hyun

Korea and Japan experienced repetitive cycl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after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unique attributes of Korea-Japan t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bilateral relations from an international justice perspective. The paper takes a minimalistic view of restorative justice considering the unique situation in East Asia. Japan's acknowledgment of its past atrocities and Korea's forgiveness are not enough to resolve matters such as post-war compensation, differing views on their shared history, and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ase of compensating victims of sexual slavery was used to explain the minimalistic view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Japanese government's reaction to efforts made by Japanese civic groups which tried to deliver such compensation.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reacted to the groups' efforts by establishing the Asia Women's Fund, it was still criticized for being restrictive and distorted.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aims to look at Korea-Japan relations in a new light by approaching it from a restorative justice point-of-view, hoping this w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ve bilateral ties for the new generations to come.

• **Keywords:** Korea-Japan relations, international justice theory, restorative justice, post-war compensation, civic society

**Early Stage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 NISHINO Junya

This paper aims to study how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developed after the 1965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The study takes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ing Korea-Japan bilateral cooperative relation. "Institutionalization" refers to the formation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network and council based o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leaders of each country shares recogni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high level discussions in political and economic arena such as the Regular Korea-Japan Ministerial Conferences, and Korea-Japan Private Council of Economy. It also discovers that political knowledge and know-hows are passed on from working-levels such as Korea-Japan Joint Committee and Economy Research Groups. Formations of such various bilateral councils and the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is only part of postwar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Nevertheless, by focusing on the interactiv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stead of focusing on Japan's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ntributions to Korea, one can understand the dynamics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from a more profound perspective.

• **Keywords:**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on the Settlement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Korea-Japan economic circle, the Regular Korea Japan Ministerial Conference, Joint Committe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 South Korean Agreement* | YOO Hyuck Soo**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South Korean Agreement” (hereafter the 1991 Memorandum) and the Special Exemption Law of Immigration Control guaranteed special legal status, including a special permanent residence with simplified procedure, relaxation of deportation requirements, and the extension of reentry permit period, to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who resided in Japan before August 15, 1945. However, the 1991 Memorandum did not resolve all the problems that the Korean society in Japan faced at that time. With the increase of Korean naturalization and marriage with Japanese, the shift from patrilineal *jus sanguinis* to bilinear system, and the growth of newcomer Koreans etc., the Korean society in Japan has experienced diverse and big changes and is now faced with new challeng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society in Japan has been chang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mainly after the 1991 Memorandum, and foresees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in Japan.

First, we investigate how much the social-economic position of Koreans had improved during Japan's economic growth of the 1960s and 1970s, based on a series of studies on foreigners in Japan in terms of occupation and social position. Second, we address that the Japanese legal system for aliens still has some important problems to be dealt with despite that the legal status of Koreans has improved radically by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by Japan and following the 1991 Memorandum.

Finally, we raise three scenarios on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in Japan: 1) Entering the mainstream Japanese society as Korean-Japanese by acquiring Japanese nationality; 2) Disregarding the constraints of nation-states and become a “free soul” in the globalized East Asia; and 3) Gradually immerse into the Japanese society with ambiguous and unclear

identity. Unfortunately, the most probable scenario would be the final one.

• **Keywords:** Koreans in Japan, old-comer and new-comer, th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identity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 CHO Youn Soo

The year 2015 marks the fiftieth year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onoring the fiftieth anniversary, this paper examines the pas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fishery and maritime relations. The two countries' maritime regime has so far been preserved by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 1965 and then re-established in 1998. In both cases, law of the sea conventions hos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has been repeatedly adopted as the agreement's guideline.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outh Korea and Japan have the duty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s to the maximum extent allowable withi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law. The reason why South Korea-Japan relations on fisheries and maritime affairs has been peacefully maintained throughou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is because both countries chose policies that upheld the status quo concerning Dokdo and deferred dealing with the issue. However, those policies are failing as the two countries claim Dokdo as the starting point in negotiations on exclusive economic zones. South Korea and Japan are now left with the challenge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such negotiations shall follow the same format through which the existing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oncluded.

• **Keywords:** South Korea- Japan Fisheries Agre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okdo, intermediate zone, Maritime Delimitation, Exclusive Economic Zone

South Korea'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 PARK Young June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South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its security relations in diverse ways. Concerning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some researchers paid attentions to America's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s in propelling the two allies into more friendly security relations or estranging each other signalling the prospect of entrapment. Other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role of Japan's diplomacy to manage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in terms of Japan's national security policy.

In this paper, I tried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Seoul's national strategy and diplomacy in developing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Each administrations of Park Chung-Hee, Roh Tae-Woo, and Kim Dae-Jung hav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and developed it by suggesting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Motherland Modernization, Northern Policy and so-called Sun-shine policy. In contrast, administrations of Kim Young-Sam,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failed to develop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due to the rising national sentiment toward Japan during their presidency despite their initial directions of national strategy which had put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mutual security cooperation. Incumb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eemed to set South Korea on the similar path in terms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like her predecessors such as Lee Myung-Bak or Roh Moo-Hyun.

Considering these patterns and tendencies, South Korea's security relations with Japan in the near future will also b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its national strategy and national sentiment in the contest of rising China and provocative North Korea.

• **Keywords:** Korea-Japan relations,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Korea's national strategy, Korea's diplomacy, Korea's security policy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Policy Id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Competitive Dependence in Political Perspective |

YOON Dae Yeob

By analyzing Korea's social perception o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this study explains that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have developed not only under economic rational, but was also vulnerable to non-economic factors.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deepened both inter-dependence and industrial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Korea-Japan's "competitive dependence relationship" is an outcome of complex interaction of economic rational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and policy ideas. Colonial memory drove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not in an equ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 but served as a negative perception alluding to Korea's economic dependency to Japan as well as Japan's economic invasion and economic control towards Korea. Export-led developmental strategy is ideational frame to understand competitive industrial relations and trade imbalance negatively. Industrial policy to resolve trade imbalance and unilateral dependence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based on these perception.

• **Keywords:**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competitive dependence, historical perception, export-led development strategy, policy idea, industrial policy to rebalance

Cooperation and Conflict seen from the Rise and Fall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

PARK Cheol Hee
Political network between Korea and Japan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facilitating cooperation and mitigating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re political executives stood at the center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since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of the two

countries.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to strengthen anti-communist alignment worked as a backbone of cooperation. Personal linkage between the key members of political network and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also strengthened cooperative tie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combined with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need for security cooperation has been weakened while cooperative platforms based on shared systems and values have been upgraded. A variety of intellectual networks have been formed while existing political networks continued to play a pivotal role.

However,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erms of regional and domestic political order led to a new situation. Economic power gap between Korea and Japan narrowed down. South Korea acquired elevated confidenc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Progress of Korea-China ties added a new horizon in handling history-related issues. In addition, domestic political changes in both societies made coordination through informal political network ineffective. The end of boss politics, generational change in both societies, increasing voices of civic organizations combined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as made informal consultation among key political leaders difficult, though not impossible.

Even though existing political networks are trying to adapt to new political environments, certain issues have hardly been settled yet: mismatch of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lack of political linkages with core political executives, and exclusive representation of participants. Developing a renewed vision for future coop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would b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se problems.

• **Keywords:** Political Network, Korea-Japan Parliamentary League, Intellectual Network, Korea-Japan Forum, Structural Transformation, Compound Fracture

Realizing and Overcoming the Double Mission: A Short History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 NAM Ki Jeong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hereafter Korea). Discussions are focu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studies on Japanese politics which has been leading Korea's Japanese studies as an area study of Japan.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s and responsibilities in hopes to develop Korea's study on Japanese politics.

In order to do so, three methods have been proposed. One is organization of previous research. The other is review of premodern Japanese studies, and the last is analysis of the activities done by The Korea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previous research, "establishing Korea's own research methodology" and "securing universality" are raised as double mission that must simultaneously be achieved. These two tasks had been raised since the 1990s, however, are repeatedly addressed as newly found examinations. Joseon Dynasty's Japanese studies served as a tool to understand the world outside of Joseon objectively separating the world from ideologies.

Within this approach, conflict between neo-Confucianist cosmopolitan perception against independent interpretation and objective perception emerges. After Korea's Liberation, a new universal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appears in understanding Japan, creating new tension with objective Japanese studies. After the 1960s, studies on Japan are focused on Japan as role-model. Studies on Japanese politics began since the 1980s, achieving incremental development in the 1990s, is the result that succeeded and overcame the past heritage.

• **Keywords:** Japanese Studies, double missions, Joseon's perception on Japan, The Korea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ARTICLES

Cross-Boundary, Cross-Lingual and Cross-National Writings of Yoko Tawada

| CHOI Yun Young

Tawada is a writer who continues to ask how the boundary emerges, exists, and falls down. She carefully watches the changes in the cross-boundary movement. These question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identity blurring. Based on text analysis of her three works *Opium für Ovid*, *Das nackte Auge*, and *Schwager in Bordeaux*, this paper shows that Tawada's texts deal with the phenomena that the boundary of self-identity, language, culture and nation is not firm but floating. She compares and mixes nonequivalent entities such as myth and economy, east and west, and capitalism and socialism. Implications of her writing are big, especiall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ecause globalization's characteristic also lies in the transgressive movement in all human lives.

• **Keywords:** Yoko Tawada, transgressive writing, *Opium für Ovid*, *Das nackte Auge*, *Schwager in Bordeaux*

『일본비평』 13호 특집에 관하여

『일본비평』 편집위원회에서는 2015년 8월 15일 발간 예정인 제13호에서 “문화이데올로기로서의 일본 미(美)”(가제/ 책임편집: 강태웅)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일본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일본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괄적 소개나 자랑을 지양하고, 일본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형성되고 상상되어온 ‘일본적’인 미(美)의 의미를 탐구하려는 것입니다. 굳이 ‘일본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족주의적인 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거나 동아시아적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일본적’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집의 기획은 ‘일본적’인 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기본적인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지적과 비판에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막을 걷어냄으로써, 차별된 일본의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마감은 2015년 4월 30일이며 소정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유주제에 의한 연구논단의 투고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편집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및 문의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140동 403호 / Tel: (02)880-8503 / e-mail: ilbi-ij@snu.ac.kr

투고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국내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일본관련 연구자.
2. **내용:** 일본에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로서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
3. **종류:** 저술물의 종류는 일본연구에 관한 논문, 서평, 특별기고, 기타로 한다. 논문은 특집논문과 자유투고논문으로 구분한다. 특집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집필을 의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평은 특집주제를 보완하는 성격의 ‘주제서평’과 국내외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한 ‘신간서평’으로 구분한다. 특별기고는 편집위원회가 특집논문과 별도로 집필을 의뢰한 학술적 성격을 갖는 저술물을 가리킨다.
4. **분량:**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150매 내외로 한다. 서평의 경우 주제서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80매 내외, 신간서평은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특별기고와 기타 원고의 분량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5. **원고작성:** 『일본비평』의 원고작성은 본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 원고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6. **제출:** 원고는 ‘아래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한다.
7. **투고마감:** 투고마감은 게재호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으로 한다. 따라서 2월 15일 발행호는 전년도 11월 15일, 8월 15일 발행호는 당해년도 5월 15일을 마감일로 한다.
8. **수정의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9. **심사비:**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편집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원고료:** 채택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11. **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 귀속된다.